

보도시점 : 2026. 8. 12.(수) 11:00 이후(8. 13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12.(수)

K-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, '시범운용구역' 지정 추진

【관련 국정과제】 31. 미래 모빌리티와 'K-AI 시티' 실현

- 8월 13일 지방정부·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(UAM)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'시범운용구역'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「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」를 개최한다.
-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, △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, △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, △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.
- '시범운용구역'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.
- 그동안 고품 실증단지,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,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.
-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, 항로와 공역을 설계·협약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, 사람·화물운송,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.
- 또한 「도심항공교통법」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,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.
-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,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(8/24~9/4)를 실시하여, 공역, 버티포트,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지원할 계획이다.
- 또한,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‘시범운용구역 운영 계획서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‘초기 상용화 운용모델(안)’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, 운항 방식,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.
-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“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,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”이라며, “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훈 (044-201-4197)
		담당자	주무관	정재희 (044-201-4329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TOMORROW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) '26. 8. 13(목) 10:30~11:30
- (장소) 서울역 KTX 대회의실(4층) *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
- (참석 대상)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예정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
- (주요 내용) ❶ 시범운용구역 지정 계획
 ❷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
 ❸ 질의응답

<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>

- ▶ (개요) 운영계획서 세부 항목별 작성요령·예시를 갖춘 실무 안내서
- ▶ (인프라 구축 및 관리) 버티포트 개발 계획, 장애물 검토에 따른 노선 계획 등
- ▶ (시범사업 지원)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, 민원 발생 대응 방안 등

※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은 지속적인 개정·보완을 위해 별도 책자로 발간하지 않으며, 설명회 시 QR코드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.

□ 세부 일정

시간(안)	주요내용	비고
10:30~10:32(02')	○ 개회	
10:32~10:45(13')	○ 인사 말씀 및 지정 추진 계획 안내	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
10:45~11:05(20')	○ 시범운용구역 가이드라인 안내	한국국토정보공사
11:05~11:20(15')	○ 질의응답 및 폐회	